

활자본 『楞嚴經諺解』 校正에 대한 기초적 연구*

유필재 **

-
- 1. 서론
 - 2. 서지 사항 및 교정 양상
 - 3. 결론
-

초록: 『楞嚴經諺解』는 활자본과 목판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활자본에 있는 오류를 교정하여 목판본을 간행하였고 목판본 간행 후 목판본에서 바뀐 부분은 다시 활자본에 補正되거나 朱墨으로 표시되어 있다. 활자본은 10권 모두 서로 다른 소장자들에 의해 複數로 현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각 권의 간략한 서지사항을 제시하고 校正의 전반적인 양상 및 특징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전하는 모든 활자본이 목판본과 똑같이 교정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정의 정도와 방법은 각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같은 권이라도 교정이 세밀하게 이루어진 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 책에 따라서는 같은 교정 대상이라도 補正 방법을 쓴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전하는 교정된 활자본은 교정쇄로 쓰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활자본의 교정은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졌다. 권밀에 교정자 기록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알 수 있다. 이를 교정자 중에는 당시 한글 문헌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확인된다.

핵심어 : 활자본 『능엄경언해』, 목판본 『능엄경언해』, 朱墨 校正, 補正, 교정자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1. 서론

잘 알려진 것처럼 『楞嚴經諺解』는 활자본과 목판본, 두 가지 종류가 혼전하고 있다. 활자본은 1461년(세조 7), 목판본은 1462년(세조 8)에 간행되었다. 활자본은 현재 서로 다른 소장자들에 의해 10책이 모두 複數로 혼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활자본들에는 목판본과 다른 부분이 校正되어 있다. 교정은 해당 부분을 朱墨으로 표시하거나 새로 인쇄된 종이를 덧붙이는 등의 補正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목판본은 교정 후의 모습을, 활자본은 교정 전 상태에 교정 내용이 더해진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교정된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문헌에서는 10책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5세기 한글 문헌의 교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활자본 『능엄경언해』는 교정 전, 후를 분명히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정 사실이 대부분 주목으로 표시되어 있고 교정 후 결과물인 목판본 역시 완질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정본 자료로서 『능엄경언해』의 가치는 양과 질에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활자본 『능엄경언해』에 대한 간략한 서지학적 검토를 하고 각 권에 행해진 교정의 전반적인 양상 및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활자본의 교정에 대해서는 김완진(1960)을 비롯하여 菅野裕臣(1983), 金英培(1991), 安秉禧(1997), 金文雄(1998 a, b, c) 등에서 개별 권에 대한 교정 내용 정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같은 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소장자들의 책이 새로이 발견됨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는 활자본의 교정 양상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같은 권이라도 교정의 양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교정자에 따라 교정 방식이나 교정 부호의 사용 양상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비교,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¹⁾

1) 교정본이 複數로 존재하는 사실은 교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주목 교정은 세밀로 해당 부분에만 최소한의 표시를 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목이 바뀐 경우도 있어서 사진이나 실물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교정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교정은 양이 많고 그 양상이 다양하다. 교정 사실이 알려 주는 서지학적, 국어학적 사실 역시 많고 다양하다. 또 교정 내용 중 일부는 규범화를 거치지 않은, 당시 국어의 다양한 변이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이들을 검토하면 중세국어나 국어사 연구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교정에 대한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에 해당된다.

2. 서지 사항 및 교정 양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엄경언해』의 활자본은 목판본과 마찬가지로 10권 모두 현전하고 있다. 개별 권은 모두 두 권 이상씩 복수로 존재한다. 이하에서 각 교정본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검토하고 각 권의 교정 내용을 개관하려고 한다.

1) 卷 1

권 1은 현재 세 책이 남아 있다. 성암문고본, 김민영 소장본,²⁾ 金秉九 소장본이 그것이다. 각각 성암문고본은 보물 760호, 김민영본은 보물 152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문헌들은 현재 문화재청 웹사이트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에서 원문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성암문고본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본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교정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권 4의 활자본 교정본은 두 권이 현전한다. 김병구본과 서울역사박물관본이 그것이다. 김병구본 권 4의 활자본을 검토한 김문웅(1998c: 22)에서는 83쪽 뒷면 제1행의 '鼴·고'가 목판본에서는 '鼴·고'로 나타나며 이는 교정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김병구본의 해당 부분을 보면 '鼴'의 종성 부분에 주목이 묻어 있어 '鼴'을 '鼴'으로 교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서울역사박물관본의 해당 부분은 '鼴·고'로 되어 있다. 목판본(96쪽 뒷면 제2행) 역시 '鼴·고'이므로 교정이 행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책은 2015년 9월 14일(월) 서울 옥션에서 경매에 의해 소장자가 바뀌었다. 현재 필자로서는 소장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이전 소장자명을 쓴다.

김병구본은 경북대출판부에서 영인된 바 있다.

성암문고본은 卷首 첫 장 난상에 ‘校正’이라는 朱墨方印이 찍혀 있다. 그러나 朱墨 교정은 되어 있지 않다. 주목 교정은 없지만 安秉禧(1997=2009: 285)의 보고에 의하면 誤字를 補正한 곳이 약간 있다고 한다. 誤字 부분을 오려내고 새로 인쇄한 글자를 찍은 종이를 책장의 紙背에 붙인 것이다. 安秉禧(1997=2009: 285)에서 補正으로 제시된 부분은 김병구본과 김민영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정되어 있다. 다만 1:23a2b의³⁾ ‘沙상陥 땅·는’ 부분은 약간 다르다. 安秉禧(1997=2009: 285)에서 밝힌 것처럼 성암문고본에서는 ‘陥’였던 부분이 ‘陀’자로 새로이 보정되어 있으나 김병구본에서는 이 부분이 주목으로 교정되어 있다. 김병구본에서는 ‘�陷入’에 ○표를 하고 주목으로 ‘陀’자를 첨가한 것이다. 김민영본은 해당 부분에 교정 없이 원래대로 ‘陥’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김민영본의 교정은 세밀하지 못한 편이다. 김민영본에 나타난 교정의 특징은 글자만 교정하였다는 점이다. 교정은 내용에 따라 誤字와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로 양분되고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는 다시 글자와 방점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安秉禧 1997=2009: 293) 김민영본은 誤字와 번역 오류 중 글자만을 교정한 것이다.⁴⁾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점은 교정하지 않는다.

또한 김민영본은 글자를 교정할 때 한자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정본에서는 교정 시 한자에는 목판본과 똑같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단다. 1권 23면의 ‘毋·卒·唯· 굳·게’는 김민영본(1:23a4b)에서는 ‘畢竟堅固·케’로 교정되었지만 김병구본에서는 ‘畢·竢竟·경堅견固·공·케’처럼 목판본과 동일하게 개별

3) 설명의 편의상 용례의 출처는 ‘권수 : 쪽, 면(a는 앞면, b는 뒷면), 행’으로 한다. 행이 쌍행일 경우에는 a는 오른쪽 행, b는 왼쪽 행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1:23a2b’는 ‘권 1의 23쪽 앞면 제2행에서 왼쪽 행’을 의미한다.

4) 그런데 글자와 관련된 것 중 가장 많은 부분(약 1/3)을 차지하는 ‘이, い’로 끝나는 한자 뒤에 표기된 조사 ‘丨’와 계사 ‘-丨-’는 교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1:46b7에서 ‘佛手丨柔軟호샤미’ 부분에서 ‘丨’에 ○ 표로 삭제 교정한 것은 한자음 뒤의 ‘丨’를 교정한 것이 아니다. 언해문 ‘부텨 손 보드라오샤미’에서 보듯이 번역 내용과 관련된 교정이다.

한자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기입했다. 둘 중 김병구본이 일반적인 교정의 방법이다.

김민영본은 교정을 하면서 잘못 써 넣은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1:49a 의 2b, 4a에서 ‘반·드기’를 기입해 넣어야 하는데 2b에서는 ‘빈·드·기’로, 4a에서는 ‘빈·드기’로 잘못 써 넣은 것이다. 두 곳 다 ‘반’으로 써야 할 것을 ‘빈’으로 잘못 기입했고 2b에서는 방점도 잘못 써 넣었다. 또 김병구본(1:74b8b)에는 난상에 ‘(師)승子:중座·짱(·는) 부덧座·짱(丨)시·니 師승子(:중)·는 중성·둘·히 :다 저흘·씨 부덧 威^形嚴(엄)·과 德·득·과·를 가·줄·벼 부텨 안즈·시·는 ·짜흘 :다 師승子:中座·짱丨·라 ·흐·느니·라’라고 기입되어 있다.⁵⁾ 김민영본은 이 경우에도 한자음을 달지 않았고 방점 표기에도 잘못이 있다. 김민영본의 해당 부분에는 ‘가줄벼, 흐·느니라’로 되어 있다.⁶⁾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면 김민영본은 그다지 공을 들인 교정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병구본은 朱墨 교정 후 상하절단 제본을 하였다. 安秉禧(1997=2009)에서 이 미 자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목판본과 다른 곳은 모두 교정되어 있다. 이 점이 김민영본과 비교된다.⁷⁾ 영인본에서는 정확히 판독하기 어려우나 南權熙(1998: 2)의 보고에 의하면 실책에는 권말에 墨書로 ‘柳仲孫’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2) 卷 2

권 2는 현재 두 책이 남아 있다. 하나는 金秉九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규장각 소장본이다. 규장각본(도서번호 古1730-53)은 보물 761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병구 본은 경북대출판부에서 영인되었다.

金秉九본은 규장각본에 비해 朱墨 교정이 적다. 예를 들어 규장각본은 2:38b6

5) 김병구본의 영인본에서 해당 부분이 잘려 보이는 부분은 괄호를 쳐 두고 목판본을 참조하여 기입해 넣었다.

6) 김병구본에서 ‘짜흘’처럼 목적격 조사가 평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정 잘못이 아니다. 목판본(1:87b)도 그러하다. 어말평성화의 예이다.

7) 한편 간행 당시의 교정이 끝난 후 이 책을 소장하던 이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교정도 발견된다. 1:7a4a에는 ‘나·타나·디’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목판본(1:8b3a)에는 ‘나·다나·디’로 되어 있고 이는 김민영본도 마찬가지이다.

에 한문 원문이 ‘身心이’로 되어 있고 ‘身’에 주목으로 ○ 표 한 후 ‘即’으로 교정하였으나⁸⁾ 김병구본에는 이러한 교정 없이 목판본처럼 ‘〈即〉心이’로⁹⁾ 되어 있다.¹⁰⁾

김병구본의 권말에는 난외에 ‘李孝根洗補’라고 주목으로 필서되어 있다. 이로써 김병구본의 교정자는 ‘李孝根’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의 교정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李孝根’은 아니다. 김병구본은 방점을 삭제할 때 ○ 표를, 규장각본은 대체로 × 표를 사용한다.¹¹⁾ 그 외에 교정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2:43a5의 ‘흘실시’를 ‘흐실시’로 교정할 때 김병구본은 ‘흘’ 전체에 주목으로 ○ 표를 한 후 그 옆에 ‘흐’라고 적어 넣었다. 그러나 규장각본은 ‘흘’의 받침 ‘르’에 ○ 표를 하는 것으로 교정을 표시했다. 2:75b9a 에서는 ‘·보는·들 가·줄·비시·니’를 ‘:보·문’으로 교정할 때 김병구본은 ‘는’에 ○ 표를 한 후 옆에 ‘·문’으로 써 넣었지만 규장각본은 ‘는’의 초성 ‘ㄴ’을 덧써서 ‘ㅁ’으로 하여 ‘문’으로 고치고 거성을 찍었다. 이 외에도 규장각본은 붓으로 덧써서 교정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조사 ‘온’의 ‘·’를 ‘—’로 덧써서 ‘은’으로 교정한 곳이 많다. 김병구본은 이 경우 새로 써 넣는다. 규장각본의 교정자는 기존 활자에 덧쓰는 방식을 선호한 듯하다. 이로써 활자본의 교정은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卷 3

권 3는 현재 두 책이 남아 있다. 하나는 김병구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동국대 소장본이다. 김병구 소장본은 경북대출판부에서 영인되었다. 동국대 소장본은 보물

8) 그런데 金完鎮(1960: 77), 菅野裕臣(1983: 254)에 의하면 규장각본에서 주목 교정된 ‘身’ 자체도 해당 부분을 사각으로 오려내고 뒤에서 새로이 덧붙인 글자라고 한다.

9) 주목 교정이 아닌 보첨 등의 물리적 교정은 설명의 편의상 ‘〈 〉’ 부호로 표시한다.

10) 영인본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김문웅(1998b: 14)의 보고에 의하면 이 ‘即’자는 보첨에 의한 것이라 한다. 한편 다음 장(2:39a6)의 ‘身心이’는 김병구본과 규장각본 모두 ‘即心이’로 주목 교정되어 있다.

11) 방점을 삭제를 위해 × 표를 사용한 예는 『釋譜詳節』 교정본(권6, 9, 13, 19)에서 이미 보인다. 예를 들어 권9, 19a3의 ‘天厓上:쌍·애’에서 ‘上:쌍’의 아래 방점에 × 표를 하여 ‘天厓上·쌍·애’로 교정하였다. 교정의 결과는 『月印釋譜』 9권(37a5-6)에서 확인된다.

948로 지정되어 있다.

권 3 김병구본은 교정자 기록도 남아 있다. 권말에 ‘鄭孝常准’이라고 필서되어 있어 교정자가 ‘鄭孝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鄭孝常’은 『능엄경언해』보다 뒤에 간행된 『金剛經訣解』(1464)의 韓繼禧跋에서도 보인다. 『금강경언해』 간행 때는 ‘번역을 쓰는 [書翻譯]’ 일을 담당하였다. 해당 부분을 보이면 (1)과 같다.

(1) … 典言 曺氏 行同判內侍府事 臣 安忠彥 護軍 臣 張末同 臣 河雲敬 司謁 臣 李元良 臣 吳命山 行謁者 臣 張終孫 臣 安哲貞 行司勇¹²⁾ 臣 洪仲山 臣 鄭孝常 臣 金龍守 臣 洪自孝 承供校尉 臣 白守和 臣 金斤 典事 臣 崔順全 臣 金允守 臣 丁壽萬 紿事 臣 金孝之 臣 李枝 書 翻譯 〈금강경언해 韩繼禧 跋 7a〉

4) 卷 4

권 4는 현재 두 책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김병구 소장본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이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101b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는 落張이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보물 973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병구본은 경북대출판부에서 영인본이 나왔다.

권 4 김병구본 권말에 ‘金孝敏洗補’라고 필서되어 있으므로¹³⁾ 이 책의 교정자는 ‘金孝敏’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金孝敏’ 역시 권 3 김병구본의 ‘鄭孝常’처럼 『금강경언해』의 韩繼禧跋에도 나타난다. ‘金孝敏’은 『금강경언해』의 간행 때에는 교정 [唱準] 일을 본 것으로 되어 있다.

(2) 行司勇 臣 張治孫 臣 金今音同 承供校尉 臣 朴成林 臣 陳繼終 臣 金孝敏 臣 李致和 臣 崔順義 臣 楊壽 臣 許孟孫 臣 尹哲山 臣 金善 唱準 〈금강경언해 韩繼禧 跋 7a〉

이상의 사실로 보아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교정자 중 일부는 이후에도 刊經都

12) ‘司勇’은 조선시대 五衛의 정9품 軍職의 관직이다.

13) 영인본에는 교정자 기록이 부분적으로만 보인다. 南權熙(1998: 3)의 보고를 참조하였다.

監에서 한글 문헌 간행과 관련된 일을 계속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김병구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朱墨 교정된 부분이 적다. 예를 들어 김병구본 4:55a7a의 ‘잇(·는)’은 ‘는’의 거성을 주목으로 ×로 표시하여 교정하였다. 목판본(4:64a1a)의 평성, 평성인 ‘잇는’이 중세국어 문법에 맞다.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본 해당 부분에 주목 표시가 없고 거성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병구본의 권말에는 ‘金孝敏洗補’라고 주목으로 필서되어 있어 교정자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교정자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 방식이 다르다. 방점을 삭제할 때 서울역사박물관본은 ○ 표를, 金秉九본은 × 표를 쓴다.¹⁴⁾ 방점을 삭제할 때 × 표를 사용한 책은 이 외에도 권 2 규장각본, 권 6 일본 天理大본, 권 7 서울역사박물관본이 있으나 김병구본의 × 표는 세필로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책의 × 표는 김병구본의 그것보다 더 크고 알아보기 쉽다.

5) 卷 5

권 5는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본, 金秉九본, 일본 天理大본 세 권이 혼준한다. 가람문고본은 보물 761호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기록유산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병구본은 경북대출판부에서 영인되었고 일본 天理大본은 『朝鮮學報』 106집(1983)에 권 6과 함께 영인되어 있다.

가람문고본과 金秉九본은 권말(78b)에 ‘徐德朴 洗’라고 朱墨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일인에 의한 교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가람문고본과 金秉九본은 교정 부호의 사용과 교정 방식이 일치한다. 글자를 삭제할 때는 □ 표로 한다. ‘।’를 삭제할 때도 글자에 맞추어서 □ 표로 한다. 글자를 첨가할 때에는 첨가할 여백 부분까지 선을 그어 놓고 해당 여백 부분에 첨가할 내용을 쓴다. 방점을 삭제할 때

14) 대표적인 예로는 4:37b4a의 ‘하나·히어·늘 → 하나(·히)어·늘’ 참조. ‘히’의 방점이 활자 위쪽으로 치우쳐 있어 방점의 위치를 교정하였다.

는 ○ 표를 한다. 한편 天理大본은 글자를 삭제할 때 \ 표를 한다.¹⁵⁾

교정 방식도 일치한다. 예를 들어 42b8a 의 ‘證·징·호·맨’을 ‘…(·맨)’으로 교정할 때 天理大본은 ‘·맨’에 ○ 표를 하고 ‘·맨’을 써 넣지만(菅野裕臣 1983: 260) 가람문고본과 김병구본은 ‘~’의 가운데 가로획 부분을 덧써 붙여서 ‘~’로 고쳐 놓았다.

그러나 가람문고본과 김병구본의 교정 방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3b7 의 ‘호노니’를 ‘(호)니’로 교정한 방식은 전혀 다르다. 가람문고본은 ‘호노’에 □ 표를 하고 위쪽 여백에 주목으로 ‘호’로 교정한 반면 金秉九본은 ‘노’에만 □ 표를 하고 ‘호’의 ‘~’ 부분에 주목으로 ‘노’라고 덧써 놓았다. 72b7b 의 ‘然연燈등이’는 ‘然연燈등(佛·囉)이’로 교정되었는데 가람문고본이 ‘佛·囉’을 欄下에 기입한 것에 비해 김병구본에서는 ‘佛·囉’을 欄內의 ‘이’ 옆에 첨가하였다.

교정자 기록이 같은데도 교정 부호의 사용 양상이 다른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뒤에서 살펴볼 서울역사박물관본 권7 역시 ‘徐德朴 洗’라는 교정자 기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권7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天理大본은 다른 두 책과 비교하면 교정 내용이 많이 다르다. 우선 天理大본은 교정할 때 한자만을 쓰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쓰지 않는다. 권 1 김민영본과 같은 방식이다.

(3) 然연燈등이 → 然연燈등(佛)이 〈天理大본 5:72b7b〉

가람문고본, 김병구본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교정이라면 교정된 ‘佛’에 대한 한자음 역시 기입되어야 한다.

天理大본의 가장 큰 특징은 교정이 누락된 곳이 많다는 점이다. 菅野裕臣(1983)의 교정표를 기준으로 보면 天理大본에 누락된 교정 부분은 아홉 곳이나 된다. 전반적으로 공을 들인 교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15) 세 책 모두 공통적인 교정 방식을 보인 곳도 있다. 교정본 권 5는 모두 12a7-8 의 한문 구결 ‘이어늘’의 ‘늘’을 보첨해 놓았다.

6) 卷 6

권 6은 현재 두 책이 남아 있다. 天理大본과 구인사본이 그것이다. 두 책 모두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天理大본은 제99장부터, 구인사본은 제97장부터 落張이다. 天理大본은 권 5와 함께 『朝鮮學報』 106집(1983)에 영인되었고 구인사본은 보물 1049호로 지정되어 있다.

권 5도 마찬가지이지만 天理大본은 누락된 교정이 많고 정성을 들인 교정은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예를 들어 구인사본은 ‘畜·亨· 과·률 → 畜·亨(·와)·률 (6:19b9b)’로 교정되어 있으나 天理大본은 해당 부분이 교정되지 있지 않다. 구인사본에는 교정되었는데 天理大본은 그렇지 않은 예를 더 들면 (4)와 같다.

- (4) 든·니고·져 카·든 → (든) … 〈구인사본 6:11a3b〉, 〈목판본 6:12b8a〉
 元非偏一切 | 어니 → …(|)어니 〈구인사본 6:50b7〉, 〈목판본 6:58b7〉
 ト → ト¹⁶⁾ 〈구인사본 6:45b3b〉, 〈목판본 6:52a7a〉
 叻 → 叻 〈구인사본 6:82a6〉, 〈목판본 6:95a8〉

구인사본에서 행해진 방점 교정이 天理大본에서는 누락된 경우도 꽤 있다. (5)의 예는 모두 목판본과 비교하면 방점을 삭제해야 하는데 天理大본에서는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5) ·처·쉼 → ·처(쉼) 〈구인사본 6:33a3a〉, 〈목판본 6:38a6a〉
 듣:리 디르·며 → 듣(리) … 〈구인사본 6:76b9a〉, 〈목판본 6:89a7b〉

天理大본은 교정 실수도 있다. 6:7b7a 에서 ‘일·우시·릴·썩’를 ‘일·우(실 ·제)’로 교정할 때 天理大본은 ‘제’를 평성으로 해 두었다. 목판본(6:9a1b) 역시 거성이다. 天理大본 쪽이 방점을 누락한 것이다.

또 권 5와 마찬가지로 권 6 역시 天理大본은 교정하여 한자를 첨가할 때 한자

16) ‘隱’의 古字이다.

만을 쓰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 (6)에서 보는 것처럼 天理大본에는 교정으로 추가된 ‘億’의 한자음이 없다. 구인사본에는 ‘億·疋’처럼 한자음이 기입되어 있다.

(6) 六·륙十·썹二·성恒疋 → 六·륙十·썹二·성(億)恒疋 〈天理大본 6:30b4b〉
 cf) → 六·륙十·썹二·성(億·疋)恒疋 〈구인사본 6:30b4b〉

구인사본, 天理大본 모두 권 6에서는 한문 원문 구결의 ‘이어든, 이어늘’을 ‘이어든, 이어늘’로 교정한 예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7) 卷 7

권 7은 네 책이 현전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동국대본, 그리고 金秉九본이 그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보물 973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보물 763호, 동국대본은 보물 7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권 7, 8이 한 책으로 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겨레문화』 1호 (1987)에 영인되어 있다. 이 책은 제1장에서 37장 앞장까지 落張이다. 김병구본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중 서울역사박물관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교정자 기록도 남아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에는 ‘徐德朴洗’,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에는 ‘柳仲孫’이라고 권말에 주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徐德朴’은 권 5 가람문고본과 김병구본의, ‘柳仲孫’은 권 1 김병구본의 교정자이기도 하다.

교정자가 다르기 때문인지 교정 부호의 양상도 다르다. 서울역사박물관본에서는 한자 교정에 ‘＼’가 쓰인다. 한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과 동국대본은 ○ 표를 사용한다. 한자를 교정한 예를 들면 (7)과 같다.

(7) 石叅 → 磻 (42b5)
 軌丸 → 軌 (82b7, 83a6, 84a5)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본을 보면 활자본 교정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나누어 작업을 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권의 교정에 다른 교정 부호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방점을 삭제할 때는 ‘×’와 ‘○’가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교정 부호가 사용된 면수는 (8)과 같다.

- (8) × - 7a3a, 9b8a, 18b8b, 19a5a, 22b7, 71a8b
 ○ - 42a5a

‘이, 」로 끝나는 한자 뒤에서 조사 ‘|’나 계사 ‘- | -’를 삭제할 때는 ‘○’와 ‘＼’가 사용되었고 해당 면수는 (9)와 같다.

- (9) ○ - 3a ~ 22b, 59b, 61a ~ 82a
 ＼ - 36b, 40a, 44b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정 부호를 비교해 보면 방점을 삭제할 때 × 표, 글자를 삭제할 때 ○ 표를 쓰는 교정자 A 가 많은 부분을 교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 ＼’를 사용하는 교정자 B 가 부분적으로 교정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 5 김병구본과 권 7 서울역사박물관본의 교정자 기록은 ‘徐德朴洗’로 같다. 그러나 둘의 교정 부호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여 문제가 된다. 권 5 김병구 본에서는 방점을 삭제할 때 ○ 표, 글자를 삭제할 때 □ 표를 쓴다.¹⁷⁾ 이제까지 본 것처럼 권 7 서울역사박물관본은 방점을 삭제할 때는 ‘×’와 ‘○’, 글자를 삭제할 때는 ‘○’와 ‘＼’ 표를 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교정자 기록이 ‘徐德朴洗’로 된 교정본은 실제로는 복수의 교정자의 의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8) 卷 8

권 8도 권 7과 마찬가지로 네 책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 세종대왕기념사업

17) 글자를 삭제할 때 글자의 사각형에 맞추어 표시한 교정 부호를 ‘□’로 표시하였다. ‘○’ 표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회본, 동국대본, 그리고 金秉九본이 그것이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보물 973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보물 763호, 동국대본은 보물 762호로 지정되어 있다. 김병구본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권 7, 8이 한 책으로 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겨레문화』 2호(1988), 3호(1989)에 영인된 바 있다.

김병구본은 실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나머지 세 책 중 서울역사박물관본만이 落張이 없는 온전한 책이다. 122b가 마지막 면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119장부터, 동국대 도서관본은 121장부터 落張이다. 菅野裕臣(1983: 276)에는 권 8의 音釋 부분의 교정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부분이 서울역사박물관본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¹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주목 교정 후 상하절단되어 제본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본은 첨가할 내용이 있을 때는 해당 부분에 작게 표를 한 후 선을 내어 여백에 첨가할 내용을 써 넣는 것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역사박물관본 8:76b6b에서 ‘…𦵹切·청’를 삽입한 교정이나 8:56b2에서 한문 부분의 구결 ‘흐니’를 ‘훈대’로 교정한 방식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본에는 특이한 교정의 흔적이 발견된다. 서울역사박물관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동국대본의 교정은 대체로 일치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곳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서울역사박물관본은 29b7에서 ‘名’으로 마치고 29b8 을 ‘救’로 시작한다. ‘救’ 밑에는 작은 표를 넣고 난외로 선으로 끌어내어 ‘護’를 첨가해 놓았다.

- (10) 向涅槃路호미 名 / 救一切衆生호티 離衆生相廻向이라 ○ 阿항難난아 ·이 善 /
 :션 … → … 名 / 救(護)一切衆生호티 … <서울역사박물관본 8:29b7-9>
 (‘/’는 행 바뀜.)

18) 누락된 音釋 부분의 교정은 다음과 같다.

相調 下徒弔切 → 相調 下徒弔(反) <서울역사박물관본 8:121a7>, <목판본 8:140b3>

그러나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과 동국대본에는 이러한 주목 교정이 되어 있지 않다. 29b7 부분은 ‘救’로 끝나고 29b8 은 ‘護’로 시작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을 예로 보인다.

(11) 向涅槃路호미 名救 / 護一切衆生호되 離衆生相廻向이라 ○ 阿항難난아 ·이 善 / :션 …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8:29b7-9>

한문 원문에 대한 언해 역시 이를 모두 (12)처럼 교정 후의 결과와 같으므로 서울역사박물관본의 한문 원문 부분에서 ‘護’가 빠진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이를 교정한 것이다.

(12) 涅槃路에 向호미 일후미 一切衆生을 救護호되 … <8:30a1-2>



<그림 1> 활자본 『능엄경언해』 권8, 29b. 서울역사박물관본(左),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右)

이 교정 때문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8:29b7 에 한문 원문이 14자나 들어간 것이다. 활자본 『능엄경언해』에서 한문 원문 부분은 일반적으로 13자를 배열한다. 한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동국대본의 해당 면이 모두 교정된 것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서울역사박물관본과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동국대본도 같은 면에서 주목 교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3) 玆·ぞり·라 → 率·ぞり(·니) <8:29b4b>

결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동국대본의 한문 원문의 교정과 (13)의 언해 부분의 주목 교정은 행해진 시기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과 동국대본의 한문 원문의 교정은 이미 활자본 간행 당시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9) 卷 9

권 9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김형규본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권 9, 10이 합본되어 보물 763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국가기록유산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 『겨례문화』 4호(1990)에 영인된 바 있다.

두 책 모두 낙장이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1~26장이 落張이며 106장이 마지막 장이다. 김형규본은 제103장 이후가 낙장이다.¹⁹⁾ 또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朱墨 교정 후 상하절단 제본되어 있다.

교정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책은 교정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9:40a2a에서 ‘僉來惱汝호느니라 → … (호리라)’를 교정함에 있어 김형규본은 ‘호’ 다음에 ‘리’를 첨가하고 ‘느니’에 ○ 표를 했다(菅野裕臣 1983: 277).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느’에 □ 표를 하고 ‘니’ 위에 덧써서 ‘리’로 만들었다. 특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글자 교정 부분을 표시할 때 분명하게 □ 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10) 卷 10

권 10은 두 책이 남아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金秉九본이 그것이다. 세종

19) 김형규본은 실사하지 못하였다. 김형규본과 관련된 내용은 菅野裕臣(1983)의 보고를 참조하였다.

대왕기념사업회본은 권 9와 합본되어 보물 763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 사업회본은 『겨례문화』 5호(1991)에 영인된 바도 있다. 김병구본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낙장이 있다. 37~40장이 낙장이고 본문은 82장까지 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跋文(御製跋)은 4장 앞면까지 있고 그 후는 낙장이다. 이 중 37~40장 낙장 부분은 두 장을 필사해 넣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권 9와 마찬가지로 朱墨 교정 후 상하절단 제본되어 있다. 김병구본은 실사하지는 못했지만 발문에는 낙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권 9와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은 두 자 이상의 글자 교정 부분을 표시할 때 분명하게 □ 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10:3a2b에서 ‘靜·쩡·케 : 몬·훈’을 교정할 때 ‘·케 : 몬·훈’ 부분을 주목으로 표시한 것이 좋은 예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권 10에는 교정 후의 결과가 오히려 오류처럼 생각되는 교정 예가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권 10, 3a2a에는 (16)과 같은 교정이 있다. 목판본은 10:3a6b에 해당되며 목판본 역시 ‘드외·게’로 되어 있다.

(16) 旱나·히·에 : 몬 旱·며 → 旱나·히 : 몬 (드외·게) 旱·며 (莫得而一旱며) 〈세종 대왕기념사업회본 10:3a2a〉

‘旱나·히·에’의 ‘·에’에 ○ 표 하여 삭제하고 ‘: 몬’과 ‘旱·며’ 사이에 ‘드외·게’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드외·게’는 중세국어 문법으로는 ‘드외·에’가 맞다.²⁰⁾ 하향이중모음 아래에서는 ‘게’가 아니라 ‘에’로 교체되어 나타나야 한다. 15세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에서 ‘드외·게’의 예는 이것이 유일하다. 당연히 『능엄경언해』의 다른 부분에서도 모두 ‘드외·에’로 나타난다.

20) 이 문제는 安秉禧(1999=2009: 305)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 (17) 昏昏으로 昭昭 | 드외에 LLH²¹⁾ 흐는 전치라
 (蓋使昏昏으로 為昭昭故也 | 라) <목판본 6:19a9>
 일로 無量衆生이 疑心호야 외오 드외에 LLH 흐야 無間獄에 빠져디리라
 (由是로 疑誤無量衆生호야 墓無間獄흐리라) <목판본 6:102b4-5>

권 10에서만 중세국어 문법에 어긋난 ‘드외·계’가 나타난 이유를 현재로 써는 알 수 없다. 다만 권 10에는 이외에도 그 밖의 권과는 다른 어형이 나타난 예가 있음을 언급해 두려고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권 10, 55a3b에는 다음과 같은 교정이 있다. 목판본은 63a8a에 해당된다.

- (18) 외·요·물 → (오)·요·물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10:55a3b>
- ‘외·요·물’을 ‘오·요·물’로 고쳤고²²⁾ 이 교정대로 목판본도 수정되었으나 ‘외·요·물’은 교정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능엄경언해』의 다른 권에서는 ‘외-’의 명사형은 ‘외음 LH’으로 되어 있다.

- (19) 외음 LH <목판본 4:122a6a, 8:30b5b, 8:31a1b>
 외요미 LHH <목판본 7:15a6b>
 외요물 LHH <목판본 8:57a8a, 9:83b4b>

또한 동시대의 다른 한글 문헌에도 평성, 거성인 ‘외·음’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세국어 문법에도 부합된다.²³⁾ 다시 말해서 권 10의 ‘오·음’은 중세국어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것이다.

21) 평성은 L, 거성은 H, 그리고 상성은 R로 표기한다.

22) 이 교정은 같은 권, 앞 부분의 ‘오·요·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10:20b3b>, <목판본 10:23b1>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 15, 16세기에 간행된 한글문헌에서 ‘오음’의 예는 이 외에 『法集別行錄』(1522)에 한 예가 더 있을 뿐이다.

온홍 업스며 오율 업스며 無是無非흐며 <법집별행록 52a>

3. 결론

본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楞嚴經譏解』는 활자본(1461)과 목판본(1462),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활자본의 오류를 바로 잡아 목판본을 간행하였고 현전하는 활자본에는 목판본에서 교정된 내용이補正되거나 주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활자본과 목판본 『능엄경언해』로 교정의 전, 후를 분명히 비교할 수 있다.

우선 현전하는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현전하는 모든 활자본이 목판본과 똑같이 교정된 것은 아니다. 교정의 정도와 방법은 각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 권1 성암문고본은 주목 교정이 되지 않은 활자본의 예이다. 권 1 김민영본처럼 방점 부분은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을 할 때 한자만 쓰고 한자음은 생략한 경우도 있다. 한자음을 생략한 교정을 보여 주는 책은 이 외에 권 5, 6 天理大본이 있다.

교정은 대체로 주목으로 표시되었지만 補正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규장각본 권 2예(2:38b6) ‘身心이’로 되어 있고 ‘身’에 주목으로 ○표 한 후 ‘即’으로 교정하였으나 김병구본에는 같은 부분이 이러한 교정 없이 ‘〈即〉心이’로 되어 있다. 補添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활자본의 교정은 여러 사람에 의해 행해졌다. 권에 따라서는 권말에 교정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알 수 있다. 교정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교정 부호가 다르고 교정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 교정 과정에 여러 명의 교정자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권 7 서울역사박물관본을 보면 같은 책 안에서 동일한 교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교정 부호를 사용한 예가 발견된다. 이를 보면 한 권의 책을 복수의 교정자가 함께 작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 활자본 『능업경언해』의 기본 서지 사항

| 권 | 소장처 | 형태 서지 특징 | 영인 상황 | 문화재 지정 |
|----|--------------|---|---------------------|---------|
| 1 | 성암문고 | | 문화재관리국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0 |
| 1 | 김민영 | | 국가기록유산 | 보물 1520 |
| 1 | 金秉九 | 朱墨 교정 후 상하절단 제본 | 경북대출판부 국가기록유산 | |
| 2 | 金秉九 | | 경북대출판부 | |
| 2 | 서울대 규장각 | |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1 |
| 3 | 金秉九 | | 경북대출판부 | |
| 3 | 동국대 도서관 | 첫 장 缺落 | 국가기록유산 | 보물 948 |
| 4 | 金秉九 | | 경북대출판부 | |
| 4 | 서울역사박물관 | 101b가 마지막. 이후 落張 | 국가기록유산 | 보물 973 |
| 5 |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 |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1 |
| 5 | 金秉九 | | 경북대출판부 | |
| 5 | 日本 天理大 도서관 | | 『朝鮮學報』 106 | |
| 6 | 日本 天理大 도서관 | 제99장부터 落張 | 『朝鮮學報』 106 | |
| 6 | 단양 구인사 | 제97장부터 落張 | 국가기록유산 | 보물 1049 |
| 7 | 서울역사박물관 | | 국가기록유산 | 보물 973 |
| 7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제1장-37a까지 落張 | 겨례문화 1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3 |
| 7 | 동국대 도서관 | |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2 |
| 7 | 金秉九 | | | |
| 8 | 서울역사박물관 | 落張 罫음. 122b가 마지막 장. | 국가기록유산 | 보물 973 |
| 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제119장부터 落張 朱墨 교정후 상하절단 제본 | 겨례문화 2, 3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3 |
| 8 | 동국대 도서관 | 제121장부터 落張 |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2 |
| 8 | 金秉九 | | | |
| 9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朱墨 교정후 상하절단 제본 1~26장 落張. 106장이 마지막 장 | 겨례문화 4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3 |
| 9 | 김형규 | 제103장 이후 落張 | | |
| 10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朱墨 교정후 상하절단 제본 37~40장. 82장 이후, 발문4장 뒷 면 이후 落張 | 겨례문화 5 국가기록유산 | 보물 763 |
| 10 | 金秉九 | | | |

그리고 이를 교정자 중 일부는 당시 한글 문헌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었음이 확인된다. 권 3 김병구본의 교정자인 ‘鄭孝常’, 권 4 김병구본의 교정자인 ‘金孝敏’이 그 예이다. 이들은 후에 간행된 『金剛經諺解』의 간행에도 관여했음을 관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4. 23), 심사일(2016. 5. 23), 게재확정일(2016. 6. 10)

참고문헌

- 金文雄, 1998a 「活字本 楞嚴經諺解(1461)에 대하여: 卷一의 중심으로」, 『金秉九 所藏 楞嚴經諺解』 卷1, 慶北大出版部
- _____, 1998b 「활자본 『能言經』 卷2의 고찰」, 『金秉九 所藏 楞嚴經諺解 卷2』, 慶北大出版部
- _____, 1998c 「새로 발견된 활자본 『能言經』 卷4의 연구」, 『金秉九 所藏 楞嚴經諺解』 卷4, 慶北大出版部
- 金英培, 1991 「을해자본 能言經언해 卷3에 대하여」, 『國語學』 21. [2000 『國語史資料研究』에 재수록]
- _____, 2000 『國語史資料研究』, 月印
- 김완진, 1960 「『能言經언해』에 관한 몇 가지 과제」, 『한글』 127
- 南廣祐, 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出版部
- 南權熙, 1998 「金秉九 所藏本 『楞嚴經諺解』 卷一의 書誌解題」, 『金秉九 所藏 楞嚴經諺解』 卷1, 慶北大出版部
- 安秉禧, 1974 「釋譜詳節의 교정에 대하여」, 『國語學』 2. (1992 『國語史 資料 研究』에 재수록)
- _____, 1976 「呂氏鄉約諺解 解題」, 『呂氏鄉約諺解(영인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_____, 1980 「阿彌陀經諺解 活字本에 대하여」, 『난정 남광우박사 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92 『國語史 資料 研究』에 재수록)
- _____, 1992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 _____, 1997 「活字本 楞嚴經諺解 解題: 卷1·10의 中心으로」, 『영인본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별책』, 문화재관리국(2009 『國語史 文獻 研究』에 재수록)
- _____, 1999 「活字本 楞嚴經諺解의 再論: 그 卷10 完本을 중심으로」, 『서지학보』 23. (2009 『國語史 文獻 研究』에 재수록)
- _____, 2003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3
- _____, 2009 『國語史 文獻 研究』, 신구문화사
- 이기문, 2005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李浩權, 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太學社

菅野裕臣, 1983 「鑄字本楞嚴經訳解の校正部分に關する表」, 『朝鮮學報』 106

志部昭平, 1983 「乙亥字本 楞嚴經訳解について」, 『朝鮮學報』 106

_____, 1990 『訳解 三綱行實図 研究』, 東京: 汲古書院

〈부록〉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활자본 『능엄경언해』의 교정 부호

① 。。

언해문 본문 중 註釋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부호(【】)에 해당하는 교정 부호이다. 金秉九본 1:74b8b 참조.

② ~~~

행에서 글자의 위치 이동을 지시하는 교정 부호이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10:68a5, 金秉九본 2:20b9b 참조. 金秉九본 3:43a1-2 에서는 '-----'처럼 직선 형태로 사용되기도 했다.

③ 。(작은 가운데권점)

글자가 삽입될 위치를 표시한다. 교정 내용은 선으로 연결하여 여백이나 난외에 쓴다. 서울역사박물관본 8:26b7a 참조.

④ 上 下

활자의 순서를 바꾸기 위한 교정부호이다. 두 활자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위 글자에 '下', 아래 글자에 '上'이라고 첨가하여 두 글자의 위치를 바꾸도록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본 권9에서 활자본의 한문 원문 부분이 '別生愛(下)法(上)호야 (9:86b3)'로 되어 있다. 한문 원문의 '愛' 옆에 주목으로 '下'라고 쓰고 '法' 옆에는 '上'이라고 기입해 놓았다. 목판본(9:99b7)에는 '別生法愛호야'처럼 두 글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Revised *Neungeom kyeong eonhae*(楞嚴經諺解)(a movable-type edition)

Yoo, Pil-Jae

Neungeom kyeong eonhae(楞嚴經諺解) was the first work of *Kangyeong Togam*(刊經都監). The ten volumes of the text were originally published in 1461, in a movable-type edition, then, the following year, in a woodblock printing. Woodblock printing edition is the revised version of movable-type edition. Proofread marks with red ink are found in movable-type edition. Some proofread marks are omitted in some volumes. The revision for the movable-type edition was done by many people. Some proofreader had involved for the publishing of other Korean text such as *Keumgang kyeong eonhae*(金剛經諺解).

Key words : *Neungeom kyeong eonhae*(楞嚴經諺解)(a movable-type edition), *Kangyeong Togam*(刊經都監), revision, proofread mark, proof reader